

臣未之聞也 無以則()乎

14. 王曰 舍之 吾不忍其()若無罪而就死地 對曰 然則廢()與 曰何可廢也 以羊易之

15. 今恩足以及() 而功不至於百姓者獨何與 然則一羽之不舉 爲不用()焉 ()之不見 爲不用()焉 百姓之不見() 爲不用()焉

16. ()然後知輕重 ()然後知() 物皆然 心爲甚 王請度之

17. 然則王之所大欲可知已 欲()土地 ()秦楚 ()中國而()四夷也 以若所爲求若所欲猶()也

[18~20] 다음 지문을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詩云 經始㉠靈臺 ㉡經之營之 庶民㉢攻之 ㉣不日成之 經始勿㉤亟 庶民(㉥)來 王在靈囿 麋鹿攸伏 麋鹿濯濯 白鳥鶴鶴 王在靈沼 於㉦物魚躍

18. 윗글에서 ㉣不日은不()日이다.

- ① 晩 ② 滿 ③ 成 ④ 終 ⑤ 對

19. ㉠ ~ ㉦의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

- ① 靈臺 - 文王臺名 ② 經 - 量度 ③ 攻 - 治 ④ 亟 - 數 ⑤ 物 - 滿

20. ㉥에 들어갈 한자를 고르시오 ()

- ① 自 ② 力 ③ 速 ④ 亟 ⑤ 子

[21~22] 다음 문장을 해석하십시오

21. 仲尼曰 始作俑者 其無後乎 爲其象人而用之也 如之何其使斯民飢而死也

22. 是故明君制民之產，必使仰足以事父母，俯足以畜妻子，樂歲終身飽，凶年免於死亡。然後驅而之善，故民之從之也輕.

수고하셨습니다

(정답)

- | | | |
|-------------------|------------------------|-----------------------|
| 1. 仁義 | 2. 士庶人, 征 | 3. 義, 利, 奪, 壓 |
| 4. 曳, 棄, 百步 | 5. 數罟, 洿池 | 6. 桑, 五十, 帛, 鷄豚狗彘, 七十 |
| 7. 庠序, 孝悌, 頒白 | 8. 庖, 廐, 飢色, 餓殍 | 9. 俑, 後, 人 |
| 10. 齊, 秦, 楚 | 11. 撻, 秦楚, 陷溺, 誰, 仁者無敵 | |
| 12. 旱, 油然, 沛然, 淳然 | 13. 桓文, 王 | |
| 14. 穀觶, 鸞鐘 | 15. 禽獸, 力, 輿薪, 明, 保, 恩 | |
| 16. 度, 權, 長短 | 17. 辟, 朝, 莅, 撫, 緣木而求魚 | |
| 18. ④ | 19. ④ | 20. ⑤ |

21.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처음에 목우를 만든자는 휴예가 없을 것이다. 사람을 본따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고 하였으니 어떻게 이백성들로 하여금 굶어죽게 하겠는가?

20. 이러한 까닭에 밝은 군주는 백성들의 생업을 만들어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위로는 족히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족히 처자를 기를 수 있게 하며, 풍년에는 종신토록 배부르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연후에 몰아서 선으로 가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따르는 것이 쉽다.